

- 제1조**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인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조**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의류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중, 투고 논문과의 전공일치도, 연구업적, 직급, 투고자와의 동일 소속 배재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, 위촉한다. 단, 특정 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정, 의뢰할 수 있다.
- 제3조** 투고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성격 및 투고 규정 형식 준수 여부를 심사한 후, 학회의 학술연구 취지에 반하거나 투고 규정에 어긋난 경우 평가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할 수 있다.
- 제4조** 투고 논문에 대한 객관적 심사 기준은 논문의 독창성, 학문적 기여도, 논문의 체계, 논리적 전개,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, 투고규정 준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.
- 제5조** 심사 결과는 '게재 가능', '수정후 게재', '수정후 재심', '게재 불가'로 구분한다.
- 제6조**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'게재 가능' 또는 '수정후 게재'로 판정하면 심사가 통과되나 최종 게재 확정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'게재 가능'과 '수정후 게재'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함께 제출한다.
- 제7조** '수정후 재심'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시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. 3차 심사의 경우는 '게재 가능'과 '게재 불가'로만 판정한다.
- 제8조**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이 '게재 불가'이거나 또는 심사 평가에서 학술지에 실릴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'게재 불가'로 판정한다.
- 제9조**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판정 시,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2주 이내로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.
- 제10조**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,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.
- 제11조** 투고자가 수정 지시 후 6개월 내에 수정한 논문을 학회로 보내지 않을 경우, 재투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- 제12조** 심사 완료 이후에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적절하게 수정, 보완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제13조**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본 학회에 논문 투고를 금지시킬 수 있다.